

□ 안녕하십니까,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입니다.

[총괄]

□ 이번에도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
민간·정부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□ 오늘은 국민주권 재정 실현을 위한
재정 운용의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.

○ 나라 살림은 결국 국민의 것으로,
국민을 위해 한 톨의 낭비 없이 쓰이고,
국민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.

○ 이에, 올해 민·관이 함께 지출효율화에 나섰고,
내년 예산안에
국민참여예산을 역대 최대로 반영하는 등
범정부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.

□ 이제 그 노력을 한 걸음 더 진전시키고자 합니다.

○ 국민과 함께 재정의 비효율을 과감하게 바로잡고,
국민에게 재정이 오롯이 닿도록 세심하게 챙기며,
국민이 원하는 예산이 폭 넓게 담기도록 하겠습니다.

○ 오늘 논의하는 세 개의 안건이 그 고민의 결과입니다.

- 첫 번째 안건은
「지출효율화 TF 운영성과 및 향후 운영방안」입니다.
- 그간 지출구조조정은 재정당국 주도로
단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이뤄짐에 따라,
여러 부처에 걸친 사업이나 제도 개선까지
깊이 들여다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.
- 그래서 정부는
부처·전문가·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
지출효율화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습니다.
 - 15개 분야별 작업반을 중심으로
부처의 현장 경험, 전문가와 국민의 제안 등을 모아
300개가 넘는 과제를 발굴했고,
100차례가 넘는 회의를 열어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.
 - 그 결과, 교육교부금과 구직급여처럼
오랫동안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온
의무지출 개편을 포함해
총 88개 과제, 44조 2천억원을 효율화하여
내년 예산안에 담았습니다.
- '27년에는 보다 신속하고 정교하게 재정의 비효율을
걸어내겠습니다.
 - ①올해 11월부터 내년 과제 발굴에 조기 착수하는 한편,
②민간전문가 및 시민사회 참여를 확대하고,
③AI를 활용해 비효율을 더 빠르고 정밀하게 찾겠습니다.

□ 두 번째 안건은

「국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방안」입니다.

- 그간 국민참여예산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,
해마다 규모가 크게 변하고, 참여 방법도 제한적이어서
국민께서 체감하시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.

□ '27년에는 양적 성장을 넘어

‘국민이 체감하는 성과’에 집중하겠습니다.

- 먼저, 제안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
찾아가는 국민제안 활성화 등 참여 방법을 다양화하고,
중앙·지방 참여예산 창구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.
- 또한, 좋은 제안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
사업선정 기준을 꼼꼼히 마련하고,
중기단위 참여예산 규모 가이드라인을 통해
규모도 안정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- 아울러, 참여의 깊이를 더할 수 있도록
상시 재정교육 체계를 구축하고,
자문단 ‘과정평가보고서’ 신설, 집행현장 모니터링
활성화 등 제도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.

- 세 번째 안건은
「재정집행 관리체계 개편방안」입니다.
- 그동안 재정집행은 자금 교부액 중심으로 관리되어,
재정이 최종 수혜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을
충분히 살피지 못했습니다.
 - 아울러, 조기에 자금을 교부하여
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.
- 이에 정부는, 재정집행 관리체계를
‘실집행’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.
 - 수혜자가 적기에 지원을 받는 데 중점을 두고,
불필요한 자금조달 비용은 최소화하겠습니다.
- '27년에는 민간보조와 R&D 출연부터
실집행 관리를 시작하겠습니다.
 - 사업별 특성에 맞는 실집행 계획을 세워
이행 여부를 점검하고,
시스템을 개편하여 자치단체 보조사업까지
단계적으로 실집행 관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.
 - 아울러 신속집행은
경기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되,
국정과제·민생안정 등 조기 성과가 필요한
핵심 사업군은 더욱 속도감 있게 관리하겠습니다.

[마무리]

- ☐ 국민주권 재정은 국민의 목소리가 예산이 되고,
그 예산이 다시 국민의 삶으로 돌아올 때
완성됩니다.
- 오늘 논의할 세 안건은 모두
그 선순환을 위한 방안입니다.
 - 내년 이맘때, 국민께서
“내 목소리가 나라 살림을 바꿨다” 고
느끼실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.
- ☐ 위원님들께서도 각자의 자리에서
생생한 아이디어를 아낌없이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.
- 그 하나하나가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
재정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.
- ☐ 감사합니다.